

광산구 21개 동 중심 '작지만 강한 주민자치' 시동

내년 동별 주요업무계획 공유회 개최 미래발전계획 수립 마을의제사업, 주요정책·사업 등 논의...예산·권한 강화

광주 광산구가 풀뿌리 자치분권 새판짜기에 나선다. 기존 광산구 중심 행정 전략을 21개 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래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광산구는 24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동 주요업무계획 공유회를 개최했다. 공유회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오영걸 광산구 부구청장, 21개 동장, 광산구 실국장을 비롯한 광산구 정책기획단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이날 공유회에서 미래발전 계획의 기초가 될 동별 기본현황과 내년 핵심시책, 광산구 2024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추진할 마을의제사업, 주요 정책·사업 등 전략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미래발전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 민관협력, 협치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연계 강화 방안, '자치플랫폼'의 동 기능과 역할 변화를 위한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등도 이뤄졌다.

광산구는 앞서 '시민이 이로운 주민자치 실현'을 민선 8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주민자

치회 지원시스템 구축 및 기능·권한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 '이웃사이 소통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동을 광산구에 종속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21개 동이 모여 광산구가 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21개 동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거점이 되도록 역할·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광산구의 구상이다.

그 첫 단추는 21개 동 미래발전 계획 수립이다. 동마다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외국인 주민 거주, 도심과 농촌, 인구 연령 비중, 사회 기반 시설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5~10년 뒤 미래를 설계하고, 광산구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 정책 등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날 공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년부터 동 미래발전 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산구 21개 동 중 19개 동은 이미 주민자치회를 출범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눈앞에 두



광산구는 지난 24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동 미래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2024년 동 주요업무계획 공유회를 개최했다.

고 있다.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까지 모색하는 주민총회 등이 안착할 정도로 뛰어난 자치 역량도 자랑하고 있다.

박병규 청장은 "제대로 된 분권,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동에서 만들어진 정책과 사업이 광산구

의 정책, 사업이 돼야 한다"며 "각 동이 '작은 광산구', 동장이 '생활구청장'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이 그 힘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 '광산경제포럼' 전략·정보 나눠

광주 광산구는 25일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3년 광산경제포럼(공개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과 적용 사례, 정부 정책 등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현민 전략경영연구소장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제조업, 소상공인, 정부 정책, 에너지,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번 경제포럼은 민·관·산·학·연이 향후 정책지원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관내 기업의 효율성, 경영 안정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고 광산구는 설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광산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더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며 "각계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제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대상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추진

강한솔 광산구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 대상·특별위 구성 담아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되며,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한솔 광산구의원

인사청문 요청 시 대상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대한 신고사항, 세금 납부 및 채납실적, 범죄 경력 등의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요청 15일 이내 인사청문을 완료해 그 결과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구청장에 송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한솔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없이 개인적 친분과 코드로 임명되면 부실 운영을 초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 간다"며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가 시행되어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 22일 황룡진수공원에서 열린 제1회 광산구청장배 전국 청소년 댄스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에 모인 '청소년 춤꾼' 강렬한 무대였다

제1회 광산구청장배 전국 청소년 댄스대회 성공적 마무리

광산구는 "제1회 광산구청장배 전국 청소년 댄스대회가 개성 넘치는 댄스 공연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25일 밝혔다.

광산뮤직ON(온)페스티벌과 연계해 지난 22일 황룡진수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춤꾼'의 경연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의 주제적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고 마음껏 꿈과 끼를 표현할 수 있는 댄스 경연의 장으로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51개 팀이 참가했다.

심사를 맡은 댄서 김설진, 김평야, 김기주의 '저지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잭팟크루' 팀의 특별공연도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대회 결과 최종 우승은 광주지역 'SOLIZ(솔리즈)' 팀이 차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전국 청소년 댄스대회는 청소년의 멋지고 놀라운 재능,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었다"며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뒷받침하는 생활체육대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의전·축사 사라지고 시민 목소리 짝 채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 호평

광주 광산구가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의전·축사를 없애고, 기념사도 구청장 대신 시민 목소리로 채워 넣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황룡진수공원에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광산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32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21개동 시민이 참여한 구민현장 낭독영상을 시작으로 광산구민상 시상, 시민대표 축사, '시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광산의 변화'를 주제로 한 상황극 순으로 진행됐으며, 광산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의전과 축사를 없애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졌다.

구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 등이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내빈 축사는 하지 않았다. 의전도 간소화해 내빈석을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방했다.

내빈과 의전이 사라진 자리는 '시민'으로 채웠고, 그동안 광산구청장이 한 기념사도 올해 처음으로 시민대표가 맡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올해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은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셨다"며 "시민이 지속가능한 광산의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경쟁하고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